

2024. 6. 9.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 설교: 임동진

본문: 마가복음 Mark 14:53-65

제목: 예수를 만난 사람들(40):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를 죽여야만 했던 이유

**(표준새번역) 14:53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ESV) 14:53 And they led Jesus to the high priest. And all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and the scribes came together.**

**14:54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쪼고 있었다.**

**14:54 And Peter had followed him at a distance, right into the courtyard of the high priest. And he was sitting with the guards and warming himself at the fire.**

**14:55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14:55 Now the chief priests and the whole council were seeking testimony against Jesus to put him to death, but they found none.

14:56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14:56 For many bore false witness against him, but their testimony did not agree.

14:57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14:57 And some stood up and bore false witness against him, saying,

14:58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14:58 "We heard him say, 'I will destroy this temple that is made with hands, and in three days I will build another, not made with hands.'"

14:59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14:59 Yet even about this their testimony did not agree.

14:60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14:60 And the high priest stood up in the midst and asked Jesus, "Have you no answer to make? What is it that these men testify against you?"

14:61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기를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였다.

14:61 But he remained silent and made no answer. Again the high priest asked him,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14:62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14:62 And Jesus said, "I am, and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eated at the right hand of Power, and coming with the clouds of heaven."

14:63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14:63 And the high priest tore his garments and said, "What further witnesses do we need?"

14:64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14:64 You have heard his blasphemy. What is your decision?" And they all condemned him as deserving death.

14:65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14:65 And some began to spit on him and to cover his face and to strike him, saying to him,

**“Prophecy!” And the guards received him with blows.**

방금 읽은 본문 53 절,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겻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에게 끌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장로, 율법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표준새번역) 14:53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ESV) 14:53 And they led Jesus to the high priest. And all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and the scribes came together.

55a 절, 그들을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라고  
부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합니다.

14:55a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

14:55a Now the chief priests and the whole council ....

민 11:16 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의 대표  
70 명을 모으게 하셨던 것이 그 기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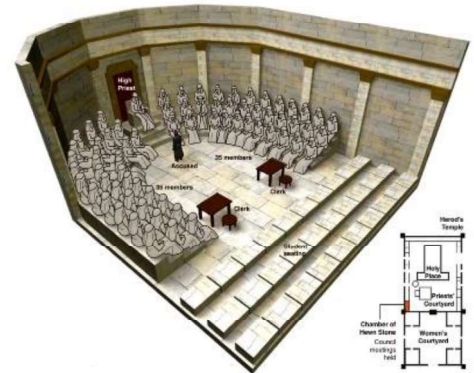
(표준새번역) 민수기 11:16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네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일흔 명을 나에게로 불러  
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ESV) Numbers 11:16 Then the Lord said to Moses, "Gather for me seventy men of the  
elders of Israel, whom you know to be the elders of the people and officers over them, and  
bring them to the tent of meeting, and let them take their stand there with you.

산헤드린(סנהדרין, Sanhedrin)이라는 말은 ‘함께 둘러 앉는다’는 그리스어 Synhedrion(신헤드리온)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림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시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성전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산헤드린 공회의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 안에 회의실이 있었던 겁니다.

### THE SANHEDRIN

The Jewish high court consisted of 71 men and was led by the high priest. The Sanhedrin council could decide almost any fate of its people—except the death penalty, which was decided by the Romans. The courtroom of the Sanhedrin was located within the Chamber of Hewn Stone inside the Temple.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들이 55 절,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왜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본질적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며, 신앙이 있는척 하지만 실제로는 ‘불신앙’때문입니다.

14:55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14:55 Now the chief priests and the whole council were seeking testimony against Jesus to  
put him to death, but they found none.

구체적으로 어떤 불신앙, 어떤 죄인의 상태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백성의 리더들이 메시아를 죽인 이유

눅 23:2 절, 산헤드린 공회는 빌라도 총독에게 세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① 백성을 미혹하고 선동(오도)한 죄, ②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금한 죄, 그리고 ③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곧 유대왕으로 주장한 죄. 특히 ②③은 반역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맞습니다.

(표준새번역) 누가복음 23:2 그들은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했는데,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ESV) Luke 23:2 And they began to accuse him, saying, "We found this man misleading our nation and forbidding us to give tribute to Caesar, and saying that he himself is Christ, a king."

예수가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자, 산헤드린 공의회는 검증하거나 확인하기보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 ✓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

세상 것의 대표가 '돈', '재물' 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돈, 그 돈을 버는 권리,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검증하기보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채찍을 들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엮고, 제사 재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상인들을 쫓아내십니다.

**(표준새번역) 마가복음 11:17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ESV) Mark 11:17 And he was teaching them and saying to them, "Is it not written,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the nations'?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예수님의 행동과 이 말씀에 대하여 이어지는 18 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예수를 없애 버릴 방법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11:18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 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Mark 11:18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heard it and were seeking a way to destroy him, for they feared him, because all the crowd was astonished at his teaching.

전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수를 고려할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몇 억짜리 장사 자리였습니다. 돈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28 절,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지만,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그건 예수를 믿기 위함도 아니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표준새번역) 마가복음 11:28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ESV) Mark 11:28 and they said to him,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or who gave you this authority to do them?"

그들은 메시아를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 ✓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의지했기 때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책망하신 후, 막  
12:40 절, 과부들의 재산까지 빼앗고 외식하며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짧게’ 책망하셨습니다,

(표준새번역) 마가복음 12:40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ESV) Mark 12:40 who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pretense make long prayers. They  
will receive the greater condemnation."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3 장에서는 1-36 절에 걸쳐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구절,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23:23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했어야 하지만, 이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ESV) Matthew 23:23 "Woe 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For you tithe mint  
and dill and cumin, and have neglected the weightier matters of the law: justice and mercy and  
faithfulness. These you ought to have done, without neglecting the others.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표준새번역) 마가복음 7:7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ESV) Mark 7:7 in vain do they worship me, teaching as doctrines the commandments of  
men.'

**7:8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관습을 지키고 있다."**

7:8 You leave the commandment of God and hold to the tradition of men."

**7:9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관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7:9 And he said to them, "You have a fine way of rejecting the commandment of God in order to establish your tradition!"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생각, 관습, 전통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점을 지적하고 질책하실 때, 그들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메시아 예수 앞에 고개 숙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므로 메시아 예수를 죽이기에 이릅니다.

또한 그들은 메시아를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 하나님보다 인기에 더 집착했기 때문**

막 14:1 절, 예수님을 붙잡아 데려오기 전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표준새번역) 마가복음 14:1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흥계를 꾸며서 예수를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ESV) 14:1 It was now two days before the Passover an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were seeking how to arrest him by stealth and kill him,

하지만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망설인 이유는  
2 절, 백성들의 소동이 싫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일 수도 있지만, 시끄럽게 만들면 자기들이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2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14:2 for they said, "Not during the feast, lest there be an uproar from the people."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분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상태이며,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적용: 우리도 그들과 같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과 자기 생각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더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도 죽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고, 학교를 결정하고, 배우자를 고를 때, 이성교제할 사람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기준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른 쪽을 가리킬 때,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과 성경 말씀이 다른 방향을 가라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내려 놓습니까,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 놓습니까?

최근 한국에서 20 여년 전, 한 여중생을 협박하고, 폭행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재조명 받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담자만 100 명이 넘고, 40 여명이 수사 대상이었지만, 단 1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욕을 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놈들이 나쁜놈인 것이 분명합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인 잘 먹고 잘 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가해자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보다 더 옳은 사람, 더 착한 사람이라고 착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나쁜 짓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그럴

만한 조건과 그런 환경과 그런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서 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가해자들과 함께  
한 친구들이었으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그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말이  
아니며, 그들의 죄가 가볍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처벌 받아야 하듯이, 우리도 그 짓했다면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만 의로운 척, 나는 착한  
척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통보다, 내  
생각보다, 다른 어떤 말보다 나의 삶의 기준 삼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인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 고백: “하나님 제가 그 산헤드린 공회원과 같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바로 그 사람입니다.”
-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소서